

#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퇴임 대통령

## 태평로



배성규  
논설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스스로 선정을 베푼 착한 권력자라고 생각한다. 임기 중엔 경제·안보·부동산 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치인이 되고도 높은 윤리 의식을 지켰다”고 자부했다. 임기 말엔 “치적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퇴임 때 “정직하고 단단하게 소신껏 일했다”고 했다. 측근들은 “국민들이 고맙다고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5년간 나라 경제는 망가지고 안보는 위태로웠다. 온갖 내로남불과 파렴치가 판쳤다. 취임 때 국민에게 약속한 30가지 중 제대로 지킨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 것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잊힌 삶을 살겠다”고 했다. 불행했던 역대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은인자중하겠다는 것으로 비쳤다. 하지만 행동은 정반대였다. 퇴임하자마자 시시콜콜한 일상까지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야권 정치인들을 수시로 만나 메시지를 날렸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남북 군사합의를 지키고 대화하라”고 훈계했다. 감사원엔 “무례하다”고 꾸짖었다. “정치를 떠나겠다”더니 현실 정치에 먼저 뛰어 들었다.

자기 일상을 담은 다큐를 제작하고 책판 사업까지 시작했다. 지자체 돈을 받아 만든 다큐는 극장에서 상영했다. 매일 수천 명이 오는 책방은 팬미팅장과 다르지 않다. 지지자들과 만나 사진 찍기에 여념 없다. 문 정권 관련 책과 굿즈, 음료를 팔아 한 달 만에 2억5000만 원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야권 인사들은 양산 사저의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온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친문은 그에게 눈도장 찍고 책방에서 인증샷을 올리는 게 필수 코스다.

### 문 국정 실패하고도 ‘난 옳다’ 다큐·책방·SNS 통해 ‘관중 정치’ 지지층 끌어모아 ‘양산박’ 쌓고 이재명 이후 ‘文 시즌2’ 준비

이재명 대표도 ‘문·명(文明) 동맹’을 확인하려고 수시로 내려온다. 자녀 입시 비리도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는 독대 술자리를 가졌다. ‘마음의 빛’을 깔고 정치적으로 밀어주려는 의미였을 것이다. 조만간 귀국할 이낙연 전 대표도 양산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역대 어느 전직 대통령도, 왕조 시대 상왕조차 퇴임 후 이런 권력은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차분한 외모와 달리 ‘관중’ 성향이 짙다. 재임 때부터 ‘탁한 민식 쇼’를 중독됐다고 할 정도로 좋아

했다. 퇴임 후에도 노출 빈도가 역대급이다. ‘잊히고 싶다’는 건 ‘나를 봐달라’는 문재인식 화법이다. 그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키우던 풍산개를 돈 문제로 파양하고도 ‘개 달력’을 만들어 팔았다. 이재명 비판 글에 ‘좋아요’를 눌렀는데 고양이와 범인이라고 했다.

잇단 실정(失政)으로 정권을 넘기고도 “5년 성취가 무너져 허망하다” “전문가에게 경제를 맡기면 안 된다”고 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물자와 울산 시장 선거 불법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측근들이 줄줄이 처벌되는데 뒷집만 졌다. 딸이 이상전 의원의 도움으로 해외 이주한 의혹에도 해명 한마디 없다. 김경숙 여사의 의상비도 대통령 기록물로 공공 속졌다. 위선적이다.

지금 문 전 대통령은 양산에 자신의 정치적 성(城)을 쌓고 있다. 총선 전후 닥쳐올지 모를 정권 비리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없지 않을 것이다. 친문들은 이재명 다음 타깃이 문 전 대통령일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해 그에 대항할 ‘양산박(梁山泊)’을 세우려는 듯하다. 포스트 이재명 체제도 구상 중일 것이다. 야권 재편의 구심점이 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은 재임 중 겪었던 ‘한 번도 경험 못 한 나라’에 이어 퇴임 후 ‘문재인 시즌2’까지 봐야 할지 모른다. 답갈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다.

## 김준의 맛과 성 [142]

### 완도 전복해초비빔밥

청산도에 가는 길이다. 웬만하면 섬에서 식사를 하지만 완도읍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오래전 청산도 음식에 대한 아쉬움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어느 섬보다 자연과 섬살이가 독특하지만, 아쉽게 음식만큼 그에 이르지 못했다.

완도읍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싱싱한 회로는 어느 곳에 지지 않지만 이를 지역 음식이라 내놓을 수 없다. 다들스럽게 최근 완도의 전복해초비빔밥이 여행객들에게 인기다. 전복 양식은 완도가 규모로 으뜸이다. 전복이나 납치 양식이 이전에는 김, 미역, 다시마, 톳 해조류 양식이 중심이었다. 특히 고급도 일대의 지주식 김 양식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또 매년 해조류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금은 김 생산량은 해남이나 진도에 미치지 못하고, 미역도 부산 기장에서 많이 양식한다.

하지만 평일도와 생일도에서 양식은 다시마는 완도가 으뜸이다. 그리고 전복 외에도 납치는 제주도에서 이어 들쭉로 많이 양식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몇 해 전부터 완도 음식으로 전복비빔밥을 내놓기 시작하더니, 여기에 해초를 얹어 전복해초비빔밥을 선보이고 있다.

얼마나 다행인가. 간혹 완도를 대표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이 웅색해진다. 그렇다고 회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복해초비빔밥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우선 꼬들꼬들한 세모가사리와 윤기 나는 김을 올리고, 여기에 오이·깻잎·양배추를 채로 썰어 올렸다. 마지막으로 삶은 전복을 채 썰어 곱게 으갠 채로 얹었다. 그



위에 참깨로 마무리한 것이다.

그래도 명색이 ‘해초비빔밥’인데 달걀 두 개지라니, 양도 종류도 너무 적다. 또 취향에 따라 초장은 선택하면 될 일인데 처음부터 끼얹어 나온 것도 아쉽다. 이런 아쉬움을 만회라도 하려는지 반찬으로 피꼬막, 호박나물, 죽순나물, 가지나물, 납치조림, 곶동무침, 오이무침, 깍두기, 미역무침, 김치, 풀치무침 등 하나하나가 좋다. 미역국은 담백하면서 맛이 깊다. 색깔을 고려해 몇 가지 해초를 곱명으로 더한다면 전복해초비빔밥이 완도 대표 음식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社 說

### 탈원전 첨병 文 정권 산업부, 원전은 조작하며 태양광으로 돈벌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산업부 과장들과 사무관이 안면도에 국내 최대인 300MW급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의 로비를 받고 태양광 부지로 쓸 수 없는 목장용 초지(草地)에 태양광이 허가될 수 있게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로비를 들어준 산업부 과장은 2년 뒤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 문제가 2019년 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산업부 공무원들은 국회 제출 답변 자료까지 허위로 작성했다고 한다. 또 태안군 공무원들은 충남도가 해당 부지의 차후 원상 복구 계획을 요구하자 서류는 제출한 뒤 실제로는 지목을 잡종지로 바꿔 원상 복구가 필요 없도록 해줬다.

산업부는 에너지 정책 담당 부서로, 문 정권의 탈원전과 태양광 확대 정책에 앞장섰다. 특히 산업부 실장 출신인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월성 1호기 영구 폐로를 주도했고 그 뒤 가스공사 사장이 됐다. 그는 가스공사 농구단에 연봉 1억원이 넘으면서 하는 일은 없는 ‘총감독’과 ‘외부단장’ 직을 신선히 하고 동문들을 앉혔다.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은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으름장질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게 했다.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들은 휴일 밤중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증

거를 인멸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문 전 대통령은 차관이 두 명이던 산업부에 제3 차관을 신설해 조작 공로로 선물을 줬다. 문 정권은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그 대신 태양광 확대 정책을 이면에서 돈벌이까지 하고 있었다. 당시 서울시 등 지자체 단위에서 운동권 출신의 태양광 업체들에 보조금을 몰아줬다가 물의를 빚은 적이 있지만,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태양광 이권 카르텔에 직접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확인된 사례 말고도 산업부 공무원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익을 취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 외에도 한국전력, 에너지공단 등 관련 8개 공공기관 직원 250여 명이 직접,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보조금을 챙겨온 사실을 적발했다.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던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경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내부 정보를 활용해 돈을 벌었다. 탈원전을 추진하던 산업부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문 정권이 판을 벌여 놓은 태양광 비리 복막전의 이곳저곳에서 돈을 챙긴 것이다.



### 법인세 깎자 해외서 번 돈 국내 반입 급증, 이것이 ‘감세 효과’

현대차 그룹이 해외법인에서 보유하던 수익금 중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를 국내로 들여와 전기차 공장 설립 등의 투자 재원으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도 올 1분기 중 해외법인 수익금 8조4400억원을 가져와 반도체 공장 투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 해외 자금의 국내 환류를 의미하는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reshoring)’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 자본 반입이 활발해진 것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외에서 번 이익금은 해당국과 국내에서 이중으로 과세했지만 작년 말 법인세법을 고쳐 국내 반입액의 95%에 대해 면세해줄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해외법인 수익금의 14%만 국내 송금했던 현대차 그룹은 세법 개정 후인 올해는 해외 수익의 50%를 배당금 형태로 국내에 들여왔다. 삼성전자 해외법인의 올 1분기 국내 송금액도 작년보다 66배나 늘었다. 다른 대기업들도 국내 반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감세를 정책 기조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율 3%

포인트 인하를 추진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인하 폭이 1%포인트로 쪼그라든 채 국회를 통과했다. 그래도 법 개정안 중 해외 법인 이중 과세 해소 방안은 살아남아 올해 들어 자본 환류를 본격화하는 정책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난 2018년 법인세율 낮추자 1조달러 규모의 해외법인 유보금 중 1년 만에 7700억달러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등 자본 리쇼어링 효과가 입증됐었다.

지난 4월 말 현재 우리 기업들의 해외 유보금 규모는 1077억달러(약 138조원)에 달한다. 이 돈이 국내로 돌아오면 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상수지를 개선시켜 환율 안정에도 도움될 수 있다. 올해 1~4월 중 상품 수지(-93억달러)와 서비스 수지(-84억달러)는 모두 적자였지만, 해외 배당이 포함된 투자 소득 수지는 13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경상수지 적자 폭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감세 정책은 세금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세금을 줄임으로써 돈이 들어오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감세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

### 소규모 건설품들 여전히 활개 치는데 곧 특별 단속 끝난다니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정부와 경찰의 특별 단속으로 민노총, 한국노총 등 거대 노조의 건설 현장 불법 폭력 행위는 크게 줄었지만 지방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소규모 건설품(건설노조 폭력배)’들이 계속 활개치고 있다고 한다. 두 명 이상이면 누구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현행법을 악용해 ‘유령 노조’를 만든 뒤 건설 업체에 ‘노조 발전 기금’이라며 돈을 뜯어내거나 조합원 고용을 압박하는 행태가 여전한다는 것이다. 건설 현장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거대 노조가 벌였던 조폭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이 3명뿐인 노조가 채용을 요구하며 작년 4월부터 석 달간 1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노조원 3명 중 2명이 과거 조폭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 조폭이 노조의 탈을 쓰고 돈을 갈취한 것이다. 경찰의 특별 단속 기간 중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민주연합 전국건설산업노조 간부리는 사람은 지난 3월부터 폐기물 매립 때 땅에 물을 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체를 협박해 1100만원을 갈취했다가 지난달 구속됐다. 두 달 전엔 경기도에서 작은 빌딩 하나를 짓는 중소기업 대표에게 10여 개 노조가 달려들어 조합원 채용을 압박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매월 100만~200만원의 노조 발전 기금을 내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건설품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지난 정부는 노조 불법에 눈을 감아주면서 건설품이 활개 치도록 방조했다. 새 정부가 건설품을 단속하면서 대형 건설 현장에선 노조가 건설 회사에서 뜯어내던 월세비, 노조원 고용을 압박하던 공사 방해 등은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하지만 지방의 소규모 건설품들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특별 단속을 이달 25일로 끝낸다고 한다. 법 집행에 무슨 시한이 있나. 건설품은 시한 없이 끝까지 뿌리 뽑아야 한다.

# 中, 6.25 침략은 사과했나? ... 모독 막말 중공 대사 즉각 추방하라

뉴데일리  
newdaily.co.kr

형해명에 판 갈아준 이재명... '황제 칙명' 받들듯 짝소리도 못해 미국 또는 일본대사가 그랬다면?... '반미·반일' 외치며 거거품 물었듯

### 문재인 이은 이재명의 중중(從中) 분석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에 요구한다.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모독한 막말 상습자, 주한 중공(中共) 대사 형해명(邢海明)을 즉각 추방하라! 중공 외교부 국장급 형해명은 마치 ‘칙사(勅使)’라도 된 듯 까불었다. 의전(儀典) 서열 8위라는 이재명은 모화관(慕華館)에 가, 그가 읽은 ‘천조(天朝)의 명(命)’을 정중히 듣고만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 형해명의 오만방자

- 형(邢)은, △ 한·중 관계가 어려워진 것은, “대만해협의 현상을 힘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 책임
- △ 대중 무역 적자는 ‘탈(脫) 중국화’가 원인
- △ 쌍중단(雙中斷, 북한 도발과 한·미 훈련 동시 중단) 해야
- △ ‘미국 승리, 중국 패배’에 베행하면 후회할 터

- △ 일본의 오염수 방류, 한·중이 함께 막아야 운운했다.
- 대한민국, 중공에 대해 "No!"라고 말해야**
- 그러나 우리는 선언한다.
- ◆ 한국 자유인들은, △ 1950~1953년 당시의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6.25 남침
- △ 티베트 점령
- △ 신장·위구르 탄압
- △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
- △ 중국 인권운동 탄압을 격하게 규탄한다.
- ◆ 한국 자유인들은, △ 중공의 해외 비밀 경찰서 운영
- △ 공자학원 등 간첩 활동
- △ 미인계
- △ 외국 첨단 기술 절취
- △ 대만해협 위협
- △ 남중국해 통행의 자유 차단도 임중히 성토한다.
- ◆ 우리는 인도-태평양 자유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무

- 역 의존을 단절(decoupling)하고 역내(域內)의 독자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전폭 지지한다.
- ◆ [마오쩌둥 중공·스탈린 소련·김일성 북한의 6.25 남침이 없었다면, 한·미 연합 훈련은 없을 것이다. 전쟁의 원인 제공자와 그 피해자를 대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억지다.
- 수치스러운 사대모화의 역사**
- 오늘의 한국 자유인들이 진정으로 후회하는 것은, 자신들의 선대(先代)들이 △ 존명사대(尊明事大) △ 모화사상(慕華思想) △ 중국적 세계관에 빠져 근대문명에 무지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수치스러운 역사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 형해명과 이재명은 들어야 한다. 일본이 방류하려는 것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treated water)+400배 해수’다. 이 문제를 IAEA 등 국제사회에 물어보라.
- 우리를 더욱 격분시킨 것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형해명의 모욕적 적태에 유감을 표하지 않는 점이다.

문재인은 “중국은 큰 봉우리...” 어찌고 하며, 수행기자들이 두들겨 맞아도 짝소리 못한 채 혼밥만 하는 ‘신판 조공외교’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러더니 이재명은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공의 대만 해협 위협에 반대할 것을 맞고 침략자 푸틴 러시아에 맞서 약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나무랐다.

우리는 이 같은 [신판 친중·친러 사대주의 집단의 일탈에 정면으로 No(不)라고 말한다. 우리 가운데 일부도 자괴(自愧)해야 한다. 형(邢)을 ‘1박 1천만 원급 호텔에 ‘모신’ 기업인들, 이런 접대는 감옥 갈 것 아닌가?

한국 자유인들은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세계 자유 진영의 일원이다. 중공 패권주의 포위를 위한 세계 자유인들의 연대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컬럼으로 6월 9일 게재 되었습니다.